

입 문

■신심명/대원 문제현 역지

신심명 본문에서 삼조 승한 대시에서는 45대처 법을 양끝을 틀어 양끝을 끌어버리고 있다. 그리하여 한결같이 양끝이라 할 것이 본래 없는 본연(本然)의 경지를 이르고 있는 것이다.



역자지인 대원 문제현 선 사남계서는 이러한 신심 명을 주해의 한 종로 회통하고 본연을 누리는 승으로 농(弄)하였다. 지극한 도라는 얼굴에 몇 겹 두꺼운 철관을 깔지 않고는 이를 수 없다 하였으니 이러한 때 무어라 해야 할까.

금강경의 부처님께서 지리 퍼 앉으신 일상과 불이(不二)의 도리를 풀는 문수의 물음에 담긴 유미의 묵연, 그리고 신심명 마지막 장, 대원 선사의 통쾌한 웃음이 있다. 이 웃음을 보라!

비로보인, 10,000원 (02)597-2460

상을 지우는 불교 다가가기

■진연스님의 불교이야기/진연스님 지음

불교를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리 쉬운 책을 보아도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어렵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어렵다는 마음의 상을 지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자 진연스님(한안 상불사 주지)은 바로 이런 마음을 경계하며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한다. 그러면 불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쉬운 용어로 불교의 교리와 사상을 개괄하고 있어 초심자들이 읽기에는 그만인 입문서다. 부처님 일생과 계율, 업, 윤회, 지바, 보살 등을 주제로 불교사상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특징. 일상에서의 참선과 화두, 마음 닦는 길도 제시하고 있다.

해음, 8,500원 (02)563-0222

에 세 이

나에 대한 믿음과 희망

■오는 세상 편안하신가/요심화법사 지음  
희망보다는 좌절의 쓴 맛을 씹는 시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증표 하나쯤은 가지고 다니며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희망한다. 요심화법사는 그 증표는 바로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 그리고 희망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스포츠저술에 '영혼 4차원의 세계'를 연재하고 있기도 한 요심화법사는 이 책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마음'을 주제로 인간과 정신의 세계를 조망한 부분도 흥미롭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시련을 한탄치 말라. 자신에게 묻고 답할 수 있도록 되라는 것이 저자가 말하는 핵심이다.

누림, 7,500원 (02)323-2100

기 타

피라미드 에너지 - 의문 풀기

■신과학으로 풀어보는 피라미드 에너지/허창욱 지음

한적 과학자의 시각에서 피라미드 에너지의 신비를 풀어낸 책. 피라미드 에너지를 소개하는 해외 자료를 중에서 충분한 검증과 실험을 거친 것이 참다운 실정. 그러나 이 책은 막연하게 피라미드의 신비한 현상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피라미드 에너지의 현상과 근원을 신과학의 시각으로 추적하면서 국내외의 관련자료와 주장을 충실하게 비교·비판하고, 아울러 중간 예시와의 연관성 속에서 과학 혁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에서 신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저자가 수년간 수집하고 연구하고 보 적인 실험 과정까지 거쳐 명심은 이 책은 피라미드 에너지에 대한 독자자의 의문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모색, 9,000원 (02)765-7438

법화경의 설명, 이해하기

■양악을 먹지 않는 지구 촌놈들/해성스님 지음

사람은 아프면 약을 먹는다. 저자는 나라가 어지럽고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받고 괴로워 할 때 도약을 막아어 한다고 말한다. 그 약은 다름아닌 [묘법연화경, 묘법의 약]을 먹으면 낫지 않는 병이 없고, 소멸되지 않는 업장이 없고, 오지 않는 복이 없으며, 붙이지 않는 공덕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법화경을 받아 지니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법화경을 쉽게 설명한 책. 법화경의 구조와 묘법연화경의 내의를 간단히 설명하고 저자가 나름대로 법화경을 수행해 오면서 얻은 이해와 법의 가치관을 담았다. 재미있는 글귀가 많다.

위음량 12,000원 (051)625-9085

북한문화유적 답사기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유홍준 지음

자기 고향인 사라진 성찰사에 꼭 가 보라며 고한 시랑과 자랑을 끌어놓던 북한 고려항공 여승무원. 이 책은 북한의 문화유적과 사당들의 표정을 따뜻하게 읽어 내려간 저자의 느낌이 그대로 담겨 있다. 고구려의 벽모습을 다시 복원해 놓은 평양의 정릉사, 묘량산의 보현사와 8각13층석탑 그리고 안남사 삼랑암, 서산사의 금강굴 등 불교문화유적과 관광 대상인성, 묘량산, 조안중앙역사박물관, 경서의 고구려 벽화유적 등 북한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으로 저자 특유의 구수한 입담으로 만날 수 있다. 최근의 북한 문화유적을 알기에는 그만인 책.



중영M&B, 9,000원 (02)751-9114

본 지면은 출판사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신간도서의 홍보기회를 제공하고 독자들에게는 정리된 책의 내용을 미리 파악하게 하여 꼭 필요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획기사형 광고연입니다.

■참여문의 : 현대불교신문 영입부 ☎ 02)732-1522(직)

**금주의 명저순례**

**역사에서 찾는 과학정신**

■수령속에 푸른꽃들/명현스님 지음  
고래의 바다에서 업보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존재의 이유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참자아를 찾아 가는 길을 제시하는 구도소설. 이 소설은 실존된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의 문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덕의 감입을 말한다. 수장의 삶과 장공의 끝없는 구도의 결실을 통해 저자는 사람으로 태어나 나 자신도 모르게 받아들여야 했던 수많은 관념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생으로부터 지고 온 입어란 관념의 덩어리를 부수어 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책을 다 읽고 난 후에 펼쳐지는 하얀 여백. 그 여백의 여백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여유. 이 소설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동남기획, 7,000원 (02)465-5128

**잡아함 1,362경에서 가려뽑은 금쪽 같은 말씀 100가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홍사성 지음  
세상이 어수선하고 삶이 버거울 때, 막연한 불안 속에서 이장포를 찾을 수 없을 때, 생각나는 분, 부처님. 부처님이라면 어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경전을 읽는다. 아함부 경전에서 부처님은 마치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침을 베풀 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법을 하신다. 난해하고 형이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소재로 삶의 진상이 어떠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솔직하고 간명하게 말씀하신다. 이 책은 아함부 경전 가운데서도 가장 원형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잡아함 1,362경에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100개의 경전을 골라 간단한 독후감을 덧붙인 것이다. 독자들이 보다 쉽게 경전을 읽을 수 있도록 뜻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문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장승 8,000원/(02)723-1679

**과거의 거울 - 현재**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중본스님 지음  
버지니아 대학의 사회심리학자인 이언 스티븐슨 박사 연구팀은 윤회설에 대한 연구 끝에 놀랍게도 전생을 기억하는 20여건의 사례를 밝혀내고, 그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바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다고 했다. 복도 그렇고 업도 그렇다.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관한 갖가지 이야기들을 묶은 책.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에게 전생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뜬금없지도 모른다. 과거사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미래사를 알고 싶으면 현재 자기의 행동을 살피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다. 이 책도 바로 현재를 바르고 선하게 살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한다는 의미에서 펴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

우리출판사 8,000원 (02)313-5047

**금주의 추천도서**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

■한국불교기도성지/정성운의 지음.  
불교에서 기도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을 위한 불보살의 원력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한 중생이라도 지옥고를 받는 자가 있으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지장보살, 병든 사람을 모두 구제하겠다는 약사여래, 천개의 눈과 손으로 중생의 고통을 살펴 어루만져 주겠다는 관세음보살의 원력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불보살의 원력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다.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나 감응하신다. 사찰에 전해오는 수많은 영험담이 이를 증명한다.

이 책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격멸보증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한 관음·지장·약사·문수·나한 기도성지 등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성취하는 한국불교 최고의 기도처 36곳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불교계 잡지·신문의 전문기자가 필자로 참여, 발로 쓴 생생한 정보가 가득한 이 책에는 신비로운 기도성취 영험담, 절의 역사, 문화재, 절을 찾아가는 길 등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불교시대사/값 7,000원/(02)730-2500

**曹溪宗團의 和合僧伽具現을 촉구한다.**

지루하게 끌던 조계종 총무원 폭력사태가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승단의 자정능력을 상실한채 공권력에 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면서 실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

제29대 총무원장선거로 발생한 조계종단의 폭력분규사태는 조계종단 내부의 문제를 넘어서 전국은 물론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한국불교가 설 자리를 잃게 되는 엄청난 과오를 범했다.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빛나는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이끌어 온 한국불교는 고래로 외부의 영향에 의한 쇠퇴와 분열이 있긴 하였으나 현대에 이르러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조계종단 폭력분규와 같은 일로 불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국민들과 사회로부터 설 자리를 잃는 불우한 일은 일찍이 없었다.

더욱이 내분이 있을때마다 대화와 타협으로 종단사태가 수습되지 못하고 급기야는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수습되어짐으로써 교인은 더없이 실추되고 2천만 불자들은 가슴에 멍이들게 되었으니 과연 이러한 것이 大慈大悲로 佛法教化라고 말할 수 있는지 조계종단에 강력히 묻고 싶다.

일반성직자도 아닌 출가수행자의 모습은 "상구보리하화중생"하며 "화합"을 통한 원용무애한 삶 자체임은 모두가 알고 있는 승가본연의 모습일진대 한국불교 중심종단으로서 제역할을 망각하고 종편에만 탐착하여 수행자의 본분을 저버리고 끝내는 승가의 화합을 파괴함으로써 사부대중의 불심을 도살시키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권승들은 이제 불교계를 떠나야 한다.

금번 폭력사태를 야기시킨 조계종단은 국민들과 사회에 참회하고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의 폭력과 불명예가 생기지 않도록 조계종단의 원로대덕스님들과 중진스님들이 솔선하여 육회정신으로 종단의 대화합을 이루고 작금의 한국불교를 바로세워 불교가 중흥발전되고 정토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모아 웅령정진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땅에 폭력권승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변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중자재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후로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면 한국불교 제종단들은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불기 2542년 12월 24일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일동**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홍천김이	국덕초
대한불교	천대종	총무원장	정길	정일호
대한불교	진각종	총무원장	김정	공화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김정	화진
대한불교	일승종	총무원장	김정	정남
대한불교	보문종	총무원장	김정	김법
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김정	대승
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김정	정일
대한불교	원흥종	총무원장	김정	김민
불교총지	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원효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진언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유화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한국불교	법륜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본원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조동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보국불교	영봉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삼존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열반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대한불교	미타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한국대승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김정	이윤

(이상 23개 종단)